

## 은행장 간담회(4.12일) 금융위원장 말씀자료

□ 우리 자동차산업은 앞선 R&D 및 디자인 기술, 엄격한 공정관리로 세계 6위 자동차 생산국으로서의 지위를 점하고 있음

- 특히 GM은 외환위기시 부실화된 대우차를 인수\*하여 자동차산업 내 고용의 12.7%, 수출의 15.7%를 차지하는 등 국내 3위 자동차 생산업체로 자리매김하면서, 우리 경제의 일자리와 성장에 크게 기여해 옴

\* 산은은 '02년 2억불(2,132억원) 출자 참여 및 지분보유를 통해 지난 15년간 한국GM의 사업 및 고용 유지에 기여

- 한국GM의 협력업체도 3천여 개(1차, 2차, 3차 포함)이고, 14만여 명을 고용하여 우리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, 인천, 창원, 군산, 보령 등 지역 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함

□ 자동차 시장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, 이에 따라 GM도 수익성 위주 경영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한국GM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중

- 개별기업의 경영정상화는 주요 주주와 경영진이 책임지고 풀어가야 할 문제이나,

- 한국 자동차산업, 특히 협력업체 등을 포함한 산업생태계 측면을 감안할 때 한국GM 문제는 단지 한 개별기업의 문제로 보기는 어려움

- 특히, 한국GM 협력업체는 2016년 GM본사가 선정하는 107개 우수협력사 중 27개사(25%) 차지하는 등 본원적 경쟁력을 가진 우수업체로서 성장동력의 핵심 업종으로 보호될 필요

- 또한, 한국GM의 노사문제 역시 단지 한국GM 노동자들만의 이해 뿐 아니라 이러한 한국 자동차산업 생태계 존립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함

- 한국 GM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범정부적 협의체를 통해 공동대응하고 있으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난관이 남아있음
  - 정부는 그동안 한국GM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대주주인 GM측에 있으므로 협상 및 실사 과정에서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한 GM측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력히 요구하고,
    - 한국GM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GM측의 합리적인 고통분담을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
  - 그러나 무엇보다도 노사합의가 안된다면 정부차원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러한 난관을 넘어서기 어려우며 앞으로의 협상도 무의미해질 소지가 큼
  - 노조 측도 사장실 점거 등 소모적 투쟁보다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(decent job)를 살리고 한국GM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
    - 사측과 원만히 협의하여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
- 한편, 한국GM 협력업체는 한국GM만의 협력업체로 보기보다는 한국GM과 현대기아차 등 他 완성차 업체가 협력업체를 공유하는 공생관계로 보는 산업 생태계적 접근이 필요함
  - 만약,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난관을 극복하고 합의에 이르더라도 협력업체 등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경우 이러한 경쟁력 있는 체계를 다시 재건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임
  - 이 경우 국내의 他 완성차 업체도 부품조달 안정성 및 조달가격 등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임

□ 이제 금융기관의 지원은 개별기업 뿐 아니라 산업생태계 전반을 감안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

○ 앞으로 한국GM 경영정상화가 지연될 경우 공장가동률 하락 및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

- 일부 협력업체의 유동성 문제 및 금융애로가 건실한 협력업체 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음

○ 물론 당국으로서도 시중은행의 상업적 판단에까지 무리하게 개입하여 지원을 요청하기는 어려움

○ 그러나, 한국GM 협력업체가 우리 자동차산업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,

○ 경쟁력이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해 있는 한국GM 협력업체\*에 대해서는 적극 상담해주고 애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

\* 과거부터 경영실패나 부실이 있었음에도 지원을 요청하거나, 핵심역량 (core competence)이 없는 상태에서의 일반적 자금지원 요청은 지양 필요

- 이를 통해 협력업체들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은행들로서도 장기 영업기반을 유지하는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

○ 은행장 여러분께서 한국GM 협력업체에 대한 애로상담이나 자금지원 실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

- 특히, 협력업체들에 대한 일방적인 신규대출 기피나 대출 상환 요청이 없는지, 기업어음할인이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같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

□ 금융위·금감원-정책금융기관 차원에서도 한국GM 협력업체에 대한 상담·지원체계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임

- 한국GM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을 모니터링하기 위해
  - i) 우선 1단계로 산업부 및 금감원과 함께 한국GM 1차 협력업체들의 금융애로 사항들을 파악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은행장님들과 공유하고,
  - ii) 2단계로 금융권 공동 「한국GM 협력업체 금융애로 해소 현장점검반」을 해당 공장지역으로 보내서 금융애로를 직접 청취하는 한편,
  - iii) 한국GM의 경영정상화 문제가 가닥을 잡을 때까지 금감원·정책금융기관들이 종합적으로 상담을 지원하는 “한국GM 협력업체 특별상담 T/F”를 운영할 예정임

- 관련 기관들은 이를 위한 후속조치들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

□ 한국 사회는 어려울 때 서로의 힘들 일을 거들고 나누는 “품앗이”라는 공동체 전통이 있어 왔음

- 우리 금융권도 적정 리스크를 지고 산업의 어려움을 나누어 갖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시점임
- 한국 자동차산업 생태계 보전 및 한국GM 정상화에 금융권 여러분들의 막중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